

너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잠언(30:1-9)

오늘은 잠언에서 핵심 같은 메시지가 나왔다. 너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너는 그가 누구지 아느냐 이말이다. 우리에게 이미 천국에서 영생,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있다. 우리의 소망이다. 단순히 거기 가면 이루어지는 소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언약을 계속 누리면 우리의 육신적 삶도 살아나게 되어있다 그날이 부활이다.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는 응답을 누리시라. 얼마 전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그렇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기에 그렇다. 그리고 이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다. 물론, 방향은 뱀의 머리를 깨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일을 당신의 뜻대로 해야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뱀의 머리카 우리 가운데 깔 수가 없다. 우리의 대적은 뱀이다. 분명히 사단의 머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깨져야 우리가 승리하는데 능력은 우리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그러면 성공, 정복하고 성경처럼 응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언약이다. 언약 안에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것이다. 내 뜻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단이다. 그래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승리, 정복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저런 부작용은 이것을 안하고 내 인생 내가 하려고 하다보니 그렇다. 때로는 방향은 하나님과 같다, 그런데 이유와 목적 방법안에 내가 아직도 여전히 들어있는 것이다. 방향은 나도 세계복음화 인데 왜 하나 어떻게 하나에는 내가 들어가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맡길수 있는 영권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은 부활절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이다.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누림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부활이 나타날 것이다. 부활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너 다시 살수 있어, 너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다. 너 생명뿐 아니라 내 언약 안에 있으면 네 인생부활 한다는 증명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게 성경이다. 성경은 이렇게 된 것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1.너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잠언 같은 책에서 이런 복음의 핵심이 나온다는 것이 놀랍다. 1절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다. 이분은 누구지 잘 밝혀지지 않은 분이다. 그냥 평신도 같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알고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 오시기 약1천년 전 사람이다. 얼마전에도 우리가 비슷한 것 봤다. 잠8장에 솔로몬이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백을 했다 쓰기는 솔로

몬이 썼지만 고백은 예수님이 하는형식으로 되어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가지셨으며 땅이 생기기전에 내가 먼저 세움을 받았나니 바다가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먼저 났으며 기록해놓았다. 창조주이며 그리스도란 말이다. 본문 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싣 자가 누구인지, 장중이란 말은 손 안에 바람을 모은 자가 누구인가란 말이다. 강이나 호수나 모든 물을 옷에 싣어버린 자가 누구겠는가? 땅으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라고 하였다. 이것이 결국,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굴은 2절에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짐승이라고 했다. 자기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고 했다. 3절에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다. 아주 겸손한 표현이다. 그러나 영적 지식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표현한 말이다. 이것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한데 나는 모르니 짐승과 같다는 말이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을 나는 모른다는 뜻이다. 가만히 보면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관한 자세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 정말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진짜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고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아굴이 너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고 질문을 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아느냐는 것이 무슨뜻이냐? 너는 그가 누구이며 무슨일을 하는자인줄 아느냐 그일이 무슨일이며 왜 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있느냐뜻이다.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이름만 말하는게 아니고 그의 일을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것처럼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라는 것이다. 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이시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는 저주에서 해방이며 사단의 머리를 깨는 권세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게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 권세가 그의 이름안에 있기에 그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권세가 그 이름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의 죽으심을 알고 그의 약속의 피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응답온다. 역사 일어난다. 사단과 전쟁할 수 있다. 이 이루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냥 입으로만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가 완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희석이 된다. 그러나 그의 이름과 피흘리 죽으심의 3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기도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지금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저주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볼수 있는 것이 부활이다. 이 언약의 이름으로 이 언약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뱀머리를 깨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 살아날 것이다. 생명이다. 천국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네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면 된다.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면 되지, 인생이 살아나면 되잖은가? 경제, 전도가 살아나야지, 내가 그 생명이다. 이것이 내 부활이다. 참 귀하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이것을 보고 언약 기도라고 한다. 그

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 아들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도를 하는가 답은 이것 뿐이고 이것으로 끝났기에 계속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책이다. 이것이 그의 이름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한번더 확인하고 언약되기를 바란다.

2.말씀

6절에 말씀에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간단하게 말했다. 계 2:18-19 더 확실한 말이 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하면 내가 그의 재앙을 더할 것이요, 계시록 성경은 두루마리에 기록해놓았다. 여기에 말씀을 자기 생각을 더 넣어서 말하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 한다고 하셨다. 19절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제어해 버리면 생명나무의 축복을 제어해 버린다고. 말씀을 하나라도 제한하면 구원에서 제한한다고 하셨으니 말씀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왜냐면 이 말씀에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에 손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고 손상되고 왜곡이 되어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정보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는 자는 사단이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말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게 한다. 과거에는 거짓말을 단순히 생각해 했다.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니 거짓말은 정말 악한 것이다. 그 뿌리가 아주 악한 데서 나왔다. 양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속으면 우리만 손해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하고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큰 거 제목은 안다 예수는 그리스도, 거짓말은 안에 들어가 구체적인 것으로 거짓말을 한다. 물론 정신 나간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보통은 다른 것을 가지고 속이고 있다. 성경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세밀하게 알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말씀이 내 현장에 맞지 않으면 나를 바꾸어야 한다. 내 인생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말씀을 바꾼다는 것이 되겠는가? 결국 사단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여하튼 성경과 틀리니까. 우리의 근본 사상은 노바디요 낫띵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오직 언약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성경의인물들처럼 이것이 언약이다. 오늘도 이 언약하나로 이겨야 한다. 그리고 이 언약잡은 기도 하나로 모든 것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된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언약 딱 되기를 바란다. 언약진짜 잡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아굴은 귀중한 기도 글을 남겼다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9절에 혹 배불러서 여호와를 모른다고 할까봐, 혹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다고 하였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은 노바디 낫띵과 같은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다. 많은 것이 필요없다. 계속 응답을 주실 것이기에 오늘 먹을 양식이면 충분하다 다했은 고백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이 오늘 아굴의 고백이다. 대단한 고백이다. 우릴에게도 이런 고백이 들어오면 능력 나 타난다. 좋다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것이다. 진짜 출발이다 늘 말씀을 듣다고 어느날 들어와 결심이 된다. 모든 문제의 말씀해결의 언약의 기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잘 안들어와도 말씀을 늘 듣고 있어야 한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 한마디 딱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진다. 만일 그것이 평생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는 답이 있다 답을 언약으로 잡아야 하는데 안 잡으니까 문제이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항상 큰 소리를 칠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 언약은 어려운 중에서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말씀이 들어오면 할수 있고 응답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문제 중에서도 할 수있다. 언약이 딱 들어와야 한다. 없어도 괜찮고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고 나는 안죽어 언약으로 승리하니까 도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배짱이 생긴다. 믿음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표현이다. 죽어도 괜찮고 안 도와줘도 괜찮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길은 있다. 이것이 믿음이고 언약의 사람이니 이것을 잡아야 승리하고 반드시 끝이 온다. 이것이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 무엇이든지 모든문제를 박살내는 권세를 주신것인데 그게 약속의 피이고 그게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살아나신 부활이다. 놀라운일이다. 옆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3일만에 살아났어 나사로의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살아난 것이다. 못 믿어 안믿어 저요 그러나 사실이다. 내가 너를 살린다 나를 보라 이것이 부활이다.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내언약을 잡아라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살아났잖는가. 이것이 부활절이다. 네가 이 언약을 잡고 부활해라 천국에 가기 전에 네 인생을 부활 시키는 언약을 잡아라 네 마음과 생각을 부활시켜라. 네 모든 삶 육신적인 것 포함하여 부활 시켜라. 이것이 그리스도 아닌가. 너는 이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 말이다.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알면 언약으로 잡으시라.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라. 그래야 역사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누가 저주에서 나오겠는가? 스스로는 불가능이다. 절대 안된다. 어쩌다 운 좋게 옆집 사람처럼 살지요 진짜는 나오지 못한다. 원죄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다. 원죄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언은 인간은 아무것도 안돼, 이것이 마음에 잘 안들어오더라. 나도 그랬다. 할수 있는데 왜 안된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만큼 할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진짜로 된다는 것이 부활이다. 딱 가슴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우리의 기도한게있다. 하나님 나도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진짜 시작을 해주세요. 오늘 부활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시 한번 언약되기를 바란다.